

청소년 사이버 도박 위험군 2만9천명 육박

여가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과의존군 전년 대비 6132명 줄어...5년 만에 첫 감소 미디어 과의존 저연령화...7월에 초1 대상 조사키로

정부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첫 사이버 도박 실태조사를 한 결과 2만9000명에 육박하는 청소년이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3일부터 28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 39만9129명과 중학교 1학년 43만9655명, 고등학교 1학년 43만8005명 등 전국의 학생 전환기 청소년 127만6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 도박 조사에서 2만8838명이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1만6309명, 고등학생이 1만2529명이었고 남자가 1만1511명, 여자가 4798명이다.

1만5995명은 사이버 도박 단일 위험군이었고 1만2843명은 사이버 도박과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등 복합

위험군이었다.

사이버 도박 위험군 중 미디어 과의존이 병존한 경우 1차적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필요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로 연계하고, 단일 위험군의 경우 바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로 연계한다.

또한 도박문제 집중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사이버도박 중독 치유프로그램을 2회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23만634명으로 전년도 23만5687명보다 5053명 감소했다. 이 수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건 2018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모두 과의존 위험군인 청소년은 8만1991명으로 이 역시 전년 대비 6132명 줄었다.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18만1065명으로 전년대비 7913명이 줄었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3만1560명으로 전년대비 3272명이 감소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과의존 위험군 수를 학령별로 보면 중학생 9만730명, 고등학생 7만4777명, 초등학생 6만5127명 순이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중학생은 증가했다.

여가부는 "초등학생의 경우 전년대비 과의존 위험군 수는 줄었으나 조사 참여인원이 44만6128명에서 39만9129명으로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오히려 저연령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미디어 과의존 저연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에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과의존 위험군이 12만4186명으로

전년 대비 214명 증가했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 10만6448명으로 전년 대비 5267명이 감소했다.

여가부는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경우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정도에 맞춰 청소년상담기관을 통해 상담, 병원치료, 기술치유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이 차단된 환경에서 집중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 및 주말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11박12일, 중·고생 대상), 가족치유캠프(2박3일, 초등생 대상)를 운영하고, 학기 중에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전북 무주), 국립대구청소년상담센터(대구)에서 상시적인 통합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남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진단조사는 미디어 과의존, 사이버 도박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드림마을 등 적절한 치유서비스에 연계하고, 청소년 스스로 건강한 미디어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올해 첫 시행된 사이버 도박문제 진단과 같이 다양한 대체 기능에 대해 청소년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18꼬마 상주 등 헌정유린 맞선 20명 정신적 손배 승소

조사천·박금희 열사 유족, 정춘식·전계량 전 5·18유족회장 등 참여 法 "국가 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 매우 중대"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20명(상속인 포함)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41.3~89.3%를 인정했다. 원고들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최소 8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정신적 피해 배상금(위자료)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에는 정춘식·전계량 전 5·18유족회장과 가족, 차중수 5·18

기념재단 기록실장부장과 가족, 조사천·박금희 열사의 유족 등이 함께 했다.

정춘식 전 5·18유족회장의 동생인 정윤식 열사는 1980년 5월 27일까지 최후 항쟁에 참여했다가 상무대로 연행됐다. 102일간 고문당한 후유증으로 23살인 1982년 2월 28일 숨졌다.

정 전 회장도 항쟁 도중 차에서 떨어져 장해 12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계량 전 5·18유족회장의 아들인 전영진 열사도 고교 3학년 때 유교령이 내려지자 참고서를 사러 가던 중 계엄군에게 붙들려 폭행당했다.

그는 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1980년 5월 21일 전남도

청 앞 항쟁에 참여했다가 조준 사격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그가 집을 나서기 이틀 전 어머니에게 "엄마, 조국이 나를 불러요"라고 말한 일화는 유명하다.

차중수 5·18재단 부장의 형인 차중성 열사도 1980년 5월 19일 무등경기장 주변에서 계엄군에게 마구 구타당한 뒤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모진 고문 끝에 석방됐으나 후유증으로 3년 뒤 숨졌다.

1980년 34세였던 조사천 열사는 전세계에 5·18 아픔을 전한 '꼬마상주' 사진의 영정 주인공이다.

조 열사는 같은 해 5월 20일 광주교대 주변에서 공수부대원들의 만행을 보고 항쟁에 참여했다. 이튿날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쏜 총을

맞고 숨졌다.

조 열사가 3대 독자였던 탓에 다섯 살 난 아들 천호군이 상주를 맡았다. 아버지의 영정 위에 턱을 권 사진이 외신에 보도되면서 5·18을 상징하는 사진 중 하나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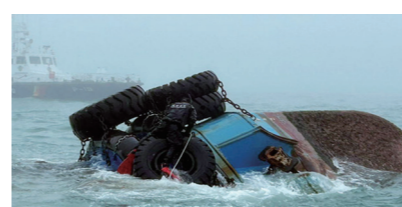
박금희 열사도 고3 때인 1980년 5월 21일 투쟁하는 시민들을 위해 헌혈한 뒤 귀가하던 중 계엄군 총탄에 희생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정당행위를 했는데도 불법 체포·구금·고문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라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중대성, 인권 침해 행위 제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43년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각각 위자료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달 1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내달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사라진다. 동체 의원, 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또 PCR 선별진료소는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이 중단된다. 사진은 29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신안 자은도 해상서 198t급 예인선 전복

신안 해상에서 예인선이 전복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3분께 신안군 자은도 북서방 약 18km 해상에서 198t급 예인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대형함정과 연안구조정 등 가용세력을 동원해 예인선과 부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 9명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예인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 5명은 모두 1400t급 부선으로 옮겨 타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은 선주 측에서 섭외한 예인선을 통해 예인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경은 사고 선박 주변 안전관리와 함께 오염여부를 확인 중이며,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바다의 날 맞아 해양환경 보호에 나서

여수해경경찰서는 "바다의 날을 맞아 민·관 합동으로 해양환경 보전 홍보 캠페인과 함께 순천만습지에서 정화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 기자



담양경찰, '문화와 함께하는 청렴 작당 모의' 진행

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향토 문화를 매개로 군민의 삶을 이해하고, 청렴 경찰의 이미지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자 '문화와 함께하는 청렴 작당 모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보성경찰-자율방범대, 간담회 개최

보성경찰서는 지난 25일 보성군 자율방범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체 치안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성=김동석 기자



함평군-함평소방, 응급상황 대비 '생명보관함' 설치

함평군과 함평소방서가 협력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관함'을 설치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광양소방, 광양공공실버주택 합동소방훈련 실시

광양소방서는 지난 24일 광양읍에 있는 광양공공실버주택을 대상으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 기자



완도소방-목욕업협회, 소방안전관리 공유 간담회

완도소방서는 화재 시 피난에 취약한 목욕탕, 찜질방 등의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한국목욕업협회 완도군지부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